

공동체 소식



부활 제3주일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4월 기도지향

- + **감영진 라파엘, 감춘희 라파엘라 가정**
- + **차호섭 요셉, 차선운 마리아 가정**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본당 평협회

- 일시: 4.17(주일) 미사 후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4.16(토) 11:00

북미주 한인 가톨릭 공동체 설립 50주년 행사 안내

- 기념만찬: 5.11(수) 저녁 6:30, 신청마감-4.25(월)까지, (714) 895 - 3619.
Double Tree Hotel, 2117 Route 4 East, Fort Lee, NJ 07024.
- 기념미사: 5.12(목) 저녁 7:00, 뉴욕대교구 주교좌 성당.
- 매 미사 전에 '북미주 한인 가톨릭 공동체 설립 50주년 기도를 바칩니다.

북미주 한인 가톨릭 공동체 설립 50주년 기념 한국성지순례

- 내용: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쉼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취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부활 감사송 3 <살아계신 중개자 그리스도> 중-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파 견
131	340	163	135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문예나 요안나	안광민 야고보
	정채린 소피아	김준영 요셉
다음주일	정예찬 미카엘	정병훈 보니파시오
	정예진 한나	문호진 안토니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대연 요셉	정수한 베드로	김주연 세실리아
차주	최은미 아네스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조경희, 김계숙, 김진미, 김소라
차주	박정자, 김경돌, 이은미, 신부님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4/3	74명	404불	2,375불
김정원, 류기범, 문석찬, 박동희, 이성현, 이영민, 이우석, 임창주, 조지연, 홍순익 (총 10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지만 오히려 기뻐합니다. 세 번이나 당신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양들을 돌보라고 말기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매달려 살해된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용감히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화해설

티베리아스 호숫가에 나타나심 (두치오, 1308-1311)

부활하신 예수님은 티베리아스 호수에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와 같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날 그곳에서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십니다.”(요한 21,7) 그가 첫 부르심을 받을 때는 떠나주십시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두려움 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치오는 이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5,27-32.40-41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화 답 송 : 

-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 2 독 서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5,11-14
<살해된 어린양은 권능과 부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19<또는 21,1-14>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



쉐 마

올바른 부활 신앙으로 순교 영성을



부활 체험과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그리 썩 부럽지는 않습니다. 부활을 보았다고 해서 세상에서의 행복을 얻게 된 것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박해를 받았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를 매어 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부활을 본 사람들의 삶이 어려하다면 그 부활을 별로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1 독서에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 의회 앞에서 물러 나왔다.”(사도 5,41) 어떻게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듯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순교는 아니지만 오늘날도 신앙 때문에 자신의 삶과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분명 그분들의 희생 뒤에는 부활 신앙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은 언제나 순교의 영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순교의 영성을 살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부활 체험은 부담이겠지만, 순교의 영성을 사는 이들에게 부활 체험은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잘못된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스스로 순교자라 자처하며 무고한 이들을 죽음에 빠뜨리는 테러리스트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영생을 위해 남은 얼마든지 죽어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신앙은 무죄한 많은 이들의 영혼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마

저 멸망에 빠뜨립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인해 순교 영성 자체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활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순교 영성이 무엇인지 되물게 됩니다.

사실, 이슬람교와 유대교, 그리스도교가 모두 중요한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구약의 율법서는 순수한 신앙을 위해 자신들 사이에서 이방인들을 제거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가르침은 기원전 6세기 이전 국경을 견고하게 하고 이방인과 대적해야 하던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어나 통용되던 것이지, 모든 시대에 글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빌론 유배를 거친 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과 행복을 누릴 것을 예언합니다. 거기다 예수님께서서는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더 이상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를 죽음에 빠뜨리지 말도록 가르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이방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공존하며 그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나도 죽고 모두도 죽는 공멸의 영성이 아니라, 나를 죽임으로써 모두를 살리고, 그로 인해 나도 결국 영원히 살게 되는 공존의 영성을 당신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통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죽이고 나만 사는 부활을 꿈꾸지 않고 나를 제물로 내어 놓음으로써 모두를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 제3주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 번 올바른 순교의 영성이 세상 곳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순교 영성으로 무고한 이들이 테러로 희생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부활 영성을 기반으로 하는 순교 영성을 살아내도록 합시다.

- 엄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사도 바오로를 실망하게 한 사람들

사도 바오로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티모테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편지 내용은 티모테오의 굳은 신앙심과 충실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에 대한 걱려를 하면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고난을 나눌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오로를 버린 것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하면서 특별히 누구를 지명하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2티모 1,1-15

사도 바오로는 에페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대한 전교에 모든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신자들이 바오로 사도의 어려움을 못 본체하고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해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믿었던 피겔로스나 헤르모게네스 등의 배신은 사도 바오로에게 큰 상처와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보통 원수나 적의 공격보다가까운 동료의 배신이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줍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사도 바오로를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2티모 1,16-18

사도 바오로가 티모테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무렵에는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 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박해와 탄압이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미치게 되자 열심히 신앙생

활했던 많은 신앙인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여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생겨납니다. 사도 바오로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협조자들이 바오로를 버리고 세상 속으로 도망 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2티모 2,1-26

로마의 혹독한 박해시기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무수한 고초를 겪고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공동체는 오히려 환난과 박해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에 무척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 시련과고난의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귀한 경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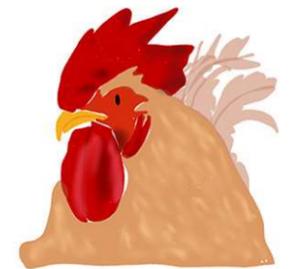
복음묵상

대답

나는 아니오
나는 아니오
나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오

납니다
내가 맞아요
내가 바로 저 사람의 제자입니다

닭아
질문은 바뀌지 않았지만
대답이 달라졌단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21,17)

- 임의준 신부